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순계분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7. 10. 17.(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부길만, 신안준,
오용섭, 한태식(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검토사항】

- | | |
|---|-----------------------------|
| 1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문화재 등록 검토 |
| 2 | 「문경 가은양조장」 문화재 등록 검토 |
| 3 | 「문경 산양양조장」 문화재 등록 검토 |
| 4 | 「당진 신평양조장」 문화재 등록 검토 |

【보고사항】

- | | |
|---|---|
| 5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 처리 보고(1건)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한 무대 및 시설물 설치 |
|---|---|

검 토 사 항

1.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7.9.22)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조선내화 주식회사(대표이사 ○○○) * 1947년 건립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수 량 : 총 13건
 - 건물 5동(A동, B동, C동, 사무실, 사택)/ 굴뚝 3개 /설비물 5기

<건물 및 시설물 현황> *등록신청 건(밑줄 친 항목)

건물명	건립년도	면적	구조	높이	기타(내부 설비물)
<u>(1)공장 A동</u>	1938년경	399.6㎡	목조, 목조 트러스	단층	<u>(9)각 가마 1기</u>
<u>(2)공장 B동</u>	1960년경	4,571.5㎡	철근콘크리트조, 철제 트러스	단층	<u>(10)독일 캐라베다프 터널가마/1961년</u> <u>(11)일본 미노요업 터널가마/1967년</u> <u>(12)건조기(챔버 드라이어)</u> <u>(13)고압 보이드 프레스</u>
<u>(3)공장 C동</u> *단열공장	1970년대	2,246.88㎡	경량철골조, 철제 트러스	단층	
<u>(4)사무동</u>	1960년대	224.88㎡	목조, 목조 트러스	단층	
<u>(5)주택동</u> *공장장 사택	1930년대	160.35㎡	목조, 목조 트러스	단층	
<u>(6)굴뚝 1</u>	1930년대		조적조	약 25m	
<u>(7)굴뚝 2</u>	1950년대		철근콘크리트조	약 25m	
<u>(8)굴뚝 3</u>	1960년대		철근콘크리트조	약 25m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 소 유 자 : 조선내화(주)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하였던 내화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며,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각 시기마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임.
- 여기에서는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초기부터 각 시기별로 설치된 각종 가마와 분쇄기, 야적장, 굴뚝, 사무동, 사택 등 내화벽돌 제조, 생산의 과정과 관리의 모든 면을 담고 있는 공장시설물과 부지 일대가 보존의 대상이라고 생각됨.

○ ○ ○ ○

- 조선내화(주) 구 목포공장은 근대시기에 설립되어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업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공장임.
- 소유주의 전향적 의지가 강하며 목포 지역사회의 근대역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역사, 전시, 문화, 예술, 체험공간, 나눔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은 문화재 보존의 근거와 합치됨.
- 건물 및 시설물외에 각종 시설 도면과 서류는 당시 운용되던 시설물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큼.

○ ○ ○ ○

- 이곳에서 생산해낸 내화벽돌은 대한민국 산업, 특히 내화벽돌이 생산시설 건축에 필요한 중화학공업(특히 포항제철)의 건축자재와 깊은 관련이 있어 한국 산업 발전의 내적 체계의 구축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시설임.
- 현재 이런 작업 공정, 산업 발전사를 전체 살필 수 있는 근현대 공장뿐만 아니라 기기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설물은 산업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음.

○ ○ ○ ○

- 근대기 전형적인 공장 건축물들과 60년대 공장 건축물들이 한 부지에 있으며, 목조 트러스와 초기 철골트러스를 볼 수 있음. 적벽돌로 시공된 굴뚝은 높이가 높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의 굴뚝은 희귀한 사례임. 벽돌쌓기 역시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짐.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공장건물이나 창고는 있으나 근대기 벽돌제작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경제성장기의 벽돌 생산시설과 비교하여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유사 문화재보다 큼.

○ ○ ○ ○

- 최초 건립된 공장시설과 함께 그 후로 6·70년대에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던 건축물과 각종 설비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잘 남아 있어 시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공장 내부의 소성 가마, 건조기 등의 시설물이 본래 위치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고 또한 이와 함께 내화물 원료의 유입, 저장에서 분쇄, 성형, 건조, 소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내화벽돌 공장 건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산업유산의 경우 대부분이 개별건물의 점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반해 동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인 측면에서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6명, 기권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조선내화 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구)조선내화 목포공장
2. 용 도 : (현) 없음 (원)내화벽돌 생산공장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4. 소유자 : 조선내화 주식회사(주소 : 전남 광양시 산업로 55)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경량철골조, 조적조
- 준공일 : **공장A동**-1938년경(단층 목조, 목조 트러스), 각 가마
공장B동-1960년경(철근콘크리트조, 철제 트러스),
터널식 가마 2기
(독일 캐라베다프 터널가마-1961년/일본 미노요업 터널가마-1967년)
건조기(챔버 드라이어)
고압 보이드 프레스
공장C동-1970년대(경량철골조, 철제 트러스)(단열공장)
사무동-1960년대(목조, 목조 트러스)
주택동-1930년대(목조, 목조 트러스)(공장장 사택)
굴뚝1-1930년대 후반(조적조)(높이 약 25m),
굴뚝2-1950년대(철근콘크리트조)(높이 약25m)
굴뚝3-1960년대(철근콘크리트조)(높이 약30m)
- 수량 및 면적 : 위의 사항 참조
- 층수(높이) : 건축물 모두 단층임.

6. 조사자 의견

<○○○>

1) 개요

- 조선내화 목포공장은, 1930년대 후반에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제생산에 필요한 耐火物 생산설비를 식민지 조선에도 건립하여 대비하였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선내화공업 주식회사가 시초이다. 일제는 1937년 만주사변으로 중국본토 침략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북부(청진 등)에도 제철공장을 건립하고 제철생산에 필요한 내화물 제조공장을 목포와 밀양에 세웠다. 이는 내화물의 원료인 납석과 점토가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 광복 후, 1947년 조선내화화학공업 주식회사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인에 의해 운영

되기 시작하였다가 6.25를 거치고 1953년에 이훈동 회장이 인수하면서 재건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의 연혁>

- 서독 캐라베다프 사의 터널 가마 1기 및 고성능 부쇄기, 전동토런기, 절단기 도입 (1960년)
- 터널 가마 화입 기념식(1961년 9월15일)
- 일본 미노요업의 터널 가마 1기 및 챔버 드라이어 설치(1967년 3월 20일)
- 미국 보이드 사 400통 고압 플레스 및 열시차 분석기 전동식 시험기 도입 설치 (1967년 7월 30일)
- 포항제철에 조업용 티밍 래들 최초벽돌 납품(1973년 6월 27일)
- 포항 제1공장 준공(1974년)
- 광양제철 연관 단지에 광양공장 신축기공(1985년)
- 조선내화 주식회사로 명칭 바꿈(1993년 4월 1일)
- 목포공장 가동중지(1997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신청대상물의 모든 유구는 공장시설물로서 건축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각 건물은 건립된 시기의 건축적 특이점과 그 변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제품의 원료가 반입되어 완제품으로 출고되는 과정의 흔적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97년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빈 상태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방치된 채로 오랜 세월 지낸 결과, 퇴락한 곳이 다소 생기는 하였으나 복원의 절차를 거친다면 어렵지 않게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상태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신청 대상물의 대지를 포함하여 주변은 “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유구는 철거되고 초고층(21층) 아파트 단지가 설립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고시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80년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한국의 산업발전사에 귀중한 증거인 이 유구를 철거하고 수려한 목포 해안의 경관을 철저히 훼손하면서 새로운 주거시설을 마련할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를 거쳐, 본 유구를 보존하여 지역문화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신청자의 보존, 활용계획서 참조)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 유구의 소유주가 이 지역에서 펼쳤던 문화사업 실적 등으로 미루어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여 지역 및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 공장 건물의 대부분이 석면 슬레이트로 마감되어 있어 유해물질인 석면제거와 이를 대체할 재료선정, 교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 산업시설로서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철도 급수탑, 역사, 수력발전소, 창고 등이 있으나 본 신청 유구처럼 완벽하게 공정을 다 보여 주는 생산시설로서 남아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철강산업의 발전속도가 급격하게 진전되던 시기에 꼭 필요 하였던 내화재의 생산시설로서 현재 드물게 남아 있는 유구이다.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1970년대의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각 시기마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산업유산이다.
- 여기에서는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초기부터 각 시기별로 설치된 각종 가마와 분쇄기, 야적장, 굴뚝, 사무동, 사택 등 내화벽돌 제조, 생산의 과정과 관리의 모든 면을 담고 있는 공장시설물과 부지 일대가 보존의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조선내화 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

1) 개요

- 1938년 7월 일본인 사토에 의해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내화물 생산을 하였다. 해방 후 1947년 손용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공장을 인수하여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설립하였다. 6.25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이훈동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고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광양 및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주력업종이 설립되면서 점차 목포 공장의 가동이 축소되었고, 1997년 목포공장 전체가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생산 현장과 일부 시설물을 보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대상물은 조선내화주식회사의 주력업종인 내화물(耐火物)를 생산하는 생산라인에 관련된 공장건물 3동과, 굴뚝 3개소, 사무실동, 사택이다. 공장은 회사의 확장과 함께 증축이 이루어졌고 제품생산에 따르는 생산라인을 살필 수 있으며 주요 시설물인 각 가마, 보이드 프레스, 건조기, 터널식 가마 2개소가 보존되어 있다.
- 관리 사무실에는 내화설비 및 건축물에 관련된 각종 도면 130장이 보존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 추적 및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향후 활용계획은 목포시에서 지정한 주택축진지구 시효만료(2018년)를 앞두고 숙고하여 진행되었으며, 최근에 들어 목포시에서 이루어낸 근대문화유산군에 대한 업적에 연계하여 조선내화의 역사공간, 근대문화유산 및 편의시설과 전시공간, 문화와 나눔의 공간, 재보선장을 중심으로 옛 목포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목포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자 한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① A동은 1930년대 후반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공장건물로 목재트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각 가마 2기가 운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1기만 남아 있다. 각 가마 1기는 그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료 투입과 배연시설이 잘 남아 있다. 가마 내부에는 여러 가지 벽돌제작을 위한 형틀을 확인할 수 있다. 6.25한국전쟁 당시에 파괴된 후 복구된 흔적이 남아 있다. A동의 서측에는 원료창고, 분쇄장, 수타장이 위치한다.
 - ② B동은 1960년대 건립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장으로 철제트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보이드 프레스, 건조기, 터널식 가마 2기가 보존되어 있다. 건물에 사용된 철제트러스는 독일에서 수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목포 노덕구 기술자가 조립·설치하였다. 이 공장에 사용된 경량철골트러스 구조는 당대의 일반 공장 건물에서 살펴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건축구조 및 구조역학 기술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B동은 내화물 생산라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현장으로 ‘원료야적장→분쇄장→보이드 프레스→건조장(챔버 드라이어)→터널식 가마→요출장’ 순서가 된다.
- 보이드 프레스 : 1967년 미국의 BOYD사에서 제작된 400t 고압 프레스가 현 위치에 남아 있다.

- 건조기(챔버 드라이어) : 1967년에 설치된 것으로 32.6m 길이의 터널식 건조기로 4개조가 있으며 폐열을 이용하여 건조설비를 갖추고 있다.
 - 독일 캐라베다프(KERABEDARF) 터널 가마 : 1960년 서독으로 부터 고성능 분쇄기, 전동토런기, 절단기와 함께 도입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설치한 길이 70m 규모의 가마이다. 독일제 가마 설치로 고른 품질, 연료절감, 연속생산이 가능해졌다.
 - 일본 미노요업 터널 가마 : 1967년 일본 미노요업(주)에서 1기를 도입하여 챔버 드라이어와 함께 설치되었다. 길이는 70.6m 규모로 연료비가 적은 연소식 가마로 공정이 짧고 폐열을 이용한 챔버드라이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 ③ C동은 1970년대 건립된 제품 단열공장으로 경량철골구조로 되어 있다. 지붕구조는 철골트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시설물은 철거되었다.
- ④ 굴뚝 3개소 : A동에 1,2굴뚝이 위치하고 B동에 3번째 굴뚝이 위치하고 있다.
- 1굴뚝 : 1930년대 후반 건립. 적벽돌조적조로 높이 25m 규모의 각 가마용 굴뚝
 - 2굴뚝 : 1950년대 건립.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높이 25m 규모의 각 가마용 굴뚝
 - 3굴뚝 : 1960년대 건립.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높이 약30m 규모의 터널식 가마용 굴뚝
- ⑤ 관리사무실동 : 1960년대 건축한 단층 목조건물로 사무실, 교환실, 사장실 등의 각 실배치는 당대의 회사 사무실 기능을 살필 수 있는 구조이다. 외부는 주출입 구우측의 경비실을 비롯한 정면과 우측면은 조적조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며 정면의 경비실 상부처마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슬라브가 확인된다. 내부는 심벽식 칸막이 벽으로 되어 있고 천정은 평반자로 합판을 마감하고 방형으로 줄대를 대었다.
- ⑥ 사택(공장장 사택) : 사택은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공장장의 주거 건물로 일식 목조주택이다. 남향의 거실을 중심으로 각 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거실의 외벽체에는 돌출창을 배치하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① A동 : 6.25한국전쟁때 반파되어 복구된 건물이며 외부 마감재가 다수 탈락되어 있다. 내부에 2개의 각 가마중 1개소가 보존되어 있다. 외부에는 공정에 따른 부속 건물이 잔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다.
- ② B동 : 1960년대 건축된 건물로 경량철골트러스 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에 보이드 프레스, 건조기(챔버 드라이어), 독일제 캐라베다프(KERABEDARF) 터널 가마, 일본제 미노요업 터널 가마가 남아 있다. 이들 시설물들은 내화공장의 핵심시설물이었으나 사용이 중지된지 오래되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③ C동 : 철골구조물을 제외한 내외부 마감재가 많이 훼손되고 설비들이 반출되어 공장건물로써의 면모가 퇴색되어 있다.
- ④ 굴뚝 3개소 : A,B동 공장에 연결된 굴뚝으로 공장의 기능과 상징성에 큰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설물이다.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강 철물이 부식되거나 탈락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⑤ 관리사무실동 : 공장내 소규모 목조+시멘트벽돌조적조 건물로 내부구조와 배치

등으로 보아 원형을 유지 하고 있다. 내부는 심벽식 목구조로 각 실을 배분하고 있다. 도로에 인접하는 건물의 외부는 시멘트벽돌 조적조로 처마와 상부는 마감부위가 오염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⑥ 사택(공장장 사택) : 건물 외형이 대부분 변형되고 훼손되어 원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지붕마감재가 골슬레이트로 바뀌었고 일식건물에서 볼 수 있는 돌출창도 훼손되고 변형되어 있다. 영업식당으로 사용되면서 내외부의 여러부위에서 변형을 가져왔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는 <성옥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근대시기의 목포와 역사를 함께한 조선내화 공장을 역사, 문화, 예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다양한 연구와 활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목포시에서도 근대시기의 역사보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주택축진 지구 계획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대량의 아파트건설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역사적경관, 도시경관, 도시문화 환경을 주도해 나아가려는 소유주의 의지를 잘 살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시기의 내화물 생산공장과 6.25한국전쟁 이후 관련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 외 역사, 문화, 예술,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 소유주의 계획이 유지되고 목포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만료됨과 동시에 목포시에서 거시적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소유주의 의지와 합치될 때 실현 가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조성 자금에 대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내화물 생산현장을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물과 함께 전시·보존하려는 경우는 최초이며, 다른 업종의 경우 청주 동부창고, 청주 구 연초제조창, 삼례문화예술촌 등이 있고, 일본 요코하마항에 위치한 아카렌가소코는 화물창고를 개조하여 관광 및 상업건물로 활용하고 있다.

7) 등록가치의견

- 조선내화(주) 구 목포공장은 근대시기에 설립되어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업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공장이다.
- A동의 각 가마와 외부 부속 시설물은 초기 내화생산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구가 된다.
- B동에서는 생산라인과 보이드 프레스, 건조기(챔버 드라이어), 독일제 캐라베다프

(KERABEDARF) 터널 가마, 일본제 미노요업 터널 가마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유일한 시설물들이다. B동의 경량철골구조물은 특이한 접합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 등록가치가 크다. 사무실동은 목조와 시멘트벽돌조를 혼용하고 있어 다소 진정성과 완성도가 뒤떨어지나 조선내화(주) 공장운영의 심장부로 각 실 배치에 따른 업무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건물이다.

- C동과 사택은 추후 활용계획에 따라 일반건축물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건물의 훼손과 변형이 커서 등록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유주의 전향적 의지가 강하며 목포 지역사회의 근대역사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역사, 전시, 문화, 예술, 체험공간, 나눔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은 문화재 보존의 근거와 합치된다.
- 건물 및 시설물외에 각종 시설 도면과 서류는 당시 운용되던 시설물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크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공장

<○○○>

1) 개요

- 조선내화(주)의 공장으로 1938년 건립, 1948년 현 조선내화주식회사가 인수 이래 1997년 공장의 광양 포항으로의 이전으로 폐쇄되기까지 벽돌 및 내화벽돌을 생산해낸 산업 시설이다.
- 특히 원료 수급과정에서 성형을 포함한 과정이 대부분 남아 있어 내화벽돌 제조의 전 과정의 구현이 가능하다. 산업 시설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임을 볼 수 있다.
- 이 공장에는 1930년대 만들어진 각가마와 관련한 조적조 굴뚝이 남아 있어 현대화 이전 생산 공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1960년, 1967년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한 70m의 터널 가마와 굴뚝이 남아 있으며
- 또 고압프레스(보이드 프레스)와 건조기 등도 남아 있어 현대화 이래 생산체계의 전환 과정을 살필 수 있다.
- 이런 시설들로 벽돌 제조의 재래의 수공 방식으로부터 자동화 단계로 이행되는 벽돌 제조 변천의 역사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 특히 1930년대 구축된 각가마와 조적조 굴뚝은 일제 강점기 근대 산업시설물로
- 원료 수급 및 벽돌 제조 공정 등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 원형을 그대로 살필 수 있어 식민지 당시 조선 목포를 중심으로 한 산업 체계 구축의 한 단면을 검토할 수 있는 매우 희소성이 큰 유적이며
- 해방 이후 특히 1960, 70년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내화 벽돌 생산의 공정 변화 자체를 살필 수 있어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근대 산업 문화재이다.
- 또한 이곳에서 생산해낸 내화벽돌은 대한민국 산업, 특히 내화벽돌이 생산시설 건축에 필요한 중화학공업(특히 포항제철)의 건축자재와 깊은 관련이 있어 한국 산업 발전의 내적 체계의 구축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시설이다.
- 현재 이런 작업 공정, 산업 발전사를 전체 살필 수 있는 근현대 공장뿐만 아니라 기기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설물은 산업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화 벽돌 생산과 관련한 중요 공정과 관련한 기기, 설비 및 공간이 남아 있지만 매우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 각 공정을 잇는 재료의 공급과 관련한 설비(컨베이어 등)는 흔적만 남아 있는 실정이며
- 남겨진 기계 및 기구들도 매우 낡고 훼손되어 이의 시급한 보존 처리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굴뚝 2기 및 공장의 트러스트 및 슬레이트, 벽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1997년 공장 가동 중단 이래 공장으로 버려져 방치되어 주변 주거지의 탄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
- 조선내화 공장을 포함 목포시 재정비 촉진지구 선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이런 점들로 공장 구역 및 시설물의 정비가 시급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 산업시설의 보존과 문화와 연계한 활용에 관한 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됨
- 그럼에도 제시된 ‘복합문화예술시설’이 가지는 모호성을 구체화할 필요성
- 목포라는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제시된 계획의 모호성으로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일 유형의 산업시설 및 공장이 생산 과정을 전부 살필 수 있는 등록문화재는 별로 없으므로 이의 보전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각가마, 각가마와 연계된 굴뚝, 연기 배출 시설 체계
- 1960. 1967년 설치된 터널 가마와 관련 장치
- 보이드 프레스 및 원료 공급 연결 장치
-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내화벽돌 생산 체계는 내화 벽돌과 중공업산업 발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산업시설물로 역사적, 산업적 가치가 높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조선내화 공장

<○○○>

1) 개요

- 1939년 일본인이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함.
- 1947년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 설립
- 1953년 전쟁 피해 복구 후 내화벽돌 생산재개
- 1997년 공장폐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근대기 전형적인 공장 건축물들과 60년대 공장 건축물들이 한 부지안에 있으며, 목조 트러스와 초기 철골트러스를 볼 수 있다. 적벽돌로 시공된 굴뚝은 높이가 높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으로 시공되어 있다. 이런 방식의 굴뚝은 희귀한 사례이다. 벽돌쌓기 역시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관리사무소와 (구) 사택 건물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공장건물들은 트러스 부분을 제외한 다른 건축요소들은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붕괴된 건물이 다수 있음. 이 건물들은 구조안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일부 목조 트러스는 부재교체와 보강 등으로 변형되어 있음.
- 근대기 초기 벽돌가마와 자동화된 벽돌가마는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벽돌의 생산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들도 잘 남아 있음.
- 두 개의 철근콘크리트조 굴뚝은 철근 녹에 따른 박리·박탈현상이 심각하여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적벽돌조 굴뚝 1기는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물들이 전반적으로 20년간 적절한 유지관리를 받지 못하여 노후화가 심한 편임. 2, 3년이내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다수의 건물들이 부분 붕괴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철골트러스와 자동화 벽돌가마도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음.

다수의 건축물이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노후화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부득이하게 철거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하는 건물이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활용계획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 주변환경과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활용계획은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나 보존관리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 프레젠틀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근거해 판단하면 등록문화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의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은 높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됨.

다. 기타사항

- 문화재 지정범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해당 부지가 너무 넓고 건물동수도 상당이 많음.
- 전반적인 노후화로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도 다수 있고 보존가치의 편차가 큰 것으로 생각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공장건물이나 창고는 있으나 근대기 벽돌제작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경제성장기의 벽돌 생산시설과 비교하여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유사 문화재보다 큼.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충분함. 일본식 가마와 자동화 가마가 있는 건물과 근대기 벽돌생산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적벽돌조 굴뚝은 원형을 보존해야 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근현대벽돌생산시설군
- (구) 조선내화벽돌공장

<○○○>

1) 개요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은 오늘날 목포시 온금동 일대의 유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최초 1938년 내화벽돌 및 내화물의 제조, 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 사토가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를 건립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한국인 손용기씨에게 불하되어 1947년 ‘조선내화화학공업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후, 한국 전쟁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고 또한 심각한 재정난 등으로 인해 당시 내화 원료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훈동씨(현, 조선내화주식회사 창업자)에게 공장 인수를 권유함에 따라 1953년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후로 철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장을 확장, 운영하여 오다 1997년 폐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본래 공장 부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간척지로 조성한 곳으로 과거 공장 전면으로는 내화물의 원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 작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선창(현지에서는 ‘짜보선창’으로 불려오고 있음)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져 그 흔적을 살펴볼 수는 없다.
- 현재 공장부지 내에는 1938년 최초 건립된 공장시설과 함께 그 후로 6·70년대에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건립되었던 건축·시설물들이 전반적으로 잘 남아 있어 시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장 내부의 소성 가마, 건조기 등의 관련 설비시설들이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내화물 원료의 유입, 저장에서 분쇄, 성형, 건조, 소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내화벽돌 공장 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오늘날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의 부지(면적:29,230m²)내에는 시기를 달리 하는 건축물, 시설물 다수가 현존하고 있다. 이중 공장의 핵심적인 공간이거나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시설로는 공장 3동(A동,B동,C동)과 사무동 1동, 굴뚝 3기 등이 남아 있다. 먼저, A동 공장의 경우 1938년 최초 설립된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와 자연 채광을 위한 고창 등은 원형의 것이나 철재 기둥 등은 후에 보수 또는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 공장 내부에는 동 시기에 함께 설치된 9.55m(길이)×5.7m(폭)×4.0m(높이) 규모의 붉은 벽돌로 축조한 각가마(혹은 단독가마) 1기가 현존하고 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본래는 동일 규모와 형태의 각가마 1가 더 있었다고 한다. 공장 B동은 1960년대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의 철제트러스 지붕 건물로서 내부에는 터널식 가마 2기가 설치되어 있다. 2기의 터널식 가마 중 1기는 1960년대의 ‘독일 캐라베다프 가마’이며, 다른 1기는 1967년의 ‘일본 미노요업 가마’로 이들 모두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기계식 건조 장치인 ‘챔버 드라이어(1960년대)’와 미국 보이드사의 ‘프레스기(1967년)’가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 내화물의 생산과 관련된 당시 작업 공정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공장 C동은 경량철골조의 철제트러스 건물로 197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단열벽돌을 생산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이들 공장들은 모두 원재료의 야적장과 완성된 제품을 보관

하던 창고 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종의 산업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 이밖에, 소성 가마와 연결된 굴뚝 3기가 현존하고 있는데 2기는 단독가마(각가마), 1기는 터널식 가마의 굴뚝이다. 단독가마(각가마) 굴뚝 중 1기(①25m(높이)×1.24m(상부직경)×3.04m(하부직경)는 공장 A동에 설치된 가마용으로 1930년대에 붉은 벽돌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25m(높이)×1.65m(상부직경)×2.27m(하부직경)) 1950년대에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와 연결된 가마는 소실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다. 터널식 가마의 굴뚝(30m(높이)×1.63m(상부직경)×2.24m(하부직경))은 1960년대에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된 것으로 현재 공장B동에 위치한 가마와 연결되어 있다.
- 오늘날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부지 내에는 이러한 생산시설 이외에도 공장의 행정기능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무동 건물도 현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목구조로 짜여졌으며 내부에는 넓은 홀을 중심으로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상부는 반자들이 있는 천정으로 마감하여 지붕가구의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면 파사드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입면 디자인과 상부 박공면 장식 등의 처리 수법이 특징적인데, 관계자에 의하면 사무동 건물이 1960년대에 건립되었다고 하나 이 시점에 목조건축에 철근콘크리트조의 파사드를 새로 덧 달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무동 내부에는 공장시설과 관련된 내화설비, 건축물 등에 대한 각종 도면이 약 130매 정도가 남아 있어 건물과 함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 시설물의 주요구조는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국전쟁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지붕 등)에 대해서는 복구과정에서 일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늘날까지 줄곧 미활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보존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인근 민가와 인접한 공장 시설물의 지붕이 석면으로 마감으로 있어 이에 대한 철거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지난 ‘12년부터 동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유달산 인근지역(서산, 온금, 금화동 일원)의 노후 및 불량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최근 조건부(‘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건축물의 굴뚝 등 일부시설물을 자산으로 보존하는 방안 검토)로 의결되었으나, 소유자측은 공장시설의 보존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의 교육 시설과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현존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은 개별 건축·시설물과 함께 공장 일곽 전체가 목포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소유자측에서 제출한 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의 교육 시설과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산업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영등포 구 경성방직 사무동(제135호)’, ‘삼화제철소 고로(제217호)’, ‘도계역 급수탑(제46호)’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이 개별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동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의 경우에는 일련의 작업과정과 이에 따른 관련 건축, 시설물이 모두 현존하고 있으므로 산업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례와 차별화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최초 건립된 공장시설과 함께 그 후로 6·70년대에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던 건축물과 각종 설비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잘 남아 있어 시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공장 내부의 소성 가마, 건조기 등의 시설물이 본래 위치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고 또한 이와 함께 내화물 원료의 유입, 저장에서 분쇄, 성형, 건조, 소성 등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내화벽돌 공장 건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산업유산의 경우 대부분이 개별건물의 점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반해 동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인 측면에서 완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2. 「문경 가은양조장」 문화재 등록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문경 가은양조장」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경 가은양조장」의 현지조사(2017.9.1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경시장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문경 가은양조장
 - 용 도 : 현재 미활용 * 문경시가 매입하여 활용방안 수립 중
 - 수량 및 면적 : 건물 241.3㎡(1층 181.9㎡, 2층 59.4㎡) * 대지 813㎡
 - 구조 및 형식 : 목조
 - 준공일 : 1938년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양산개3길 13
 - 소유자 : 문경시
- (3)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등록 후 문화재청과 협의)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 1938년 건축된 건물로 전체적 규모가 현존하는 근대기 양조장으로서 사무실 부분이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임.
- 현재 부분적으로 변형되고 노후화, 훼손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근대기 양조장의 기본적 기능과 건축적 특성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양조장 등록사례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가은양조장은 과거 문경시 가은읍의 번성하였던 근대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자원으로서 문경시에서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래 보존, 활용여건도 양호함.

○ ○ ○ ○

- 양조장은 건립이후 건물 배치와 구조가 비교적 원형과 가깝게 잘 유지되고 있음. 목구조의 사무실동(2층)과 흙벽돌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목조트러스를 사용한 단층의 양조장은 근대식건축으로 한식목구조와는 달리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흙벽돌구조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 점과 솥을지붕의 구성, 온습도 조절을 위한 천장의 왕겨층, 당대의 양조설비 기술 등은 근대시기의 양조장 건물의 특성을 엿볼 수 있음.
- 건물의 등록은 가치가 있다고 보며 활용을 위한 문경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며 수리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 ○

- 1930년대 말 탄광지역의 주조장 건축물은 산업적 배경과 역사성에서 근대유산으로 등록가치가 크며, 건축물 자체로도 형태나 공간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보존수리가 용이하여 근대유산으로 등록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 소유자(문경시)가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의 의지가 강하므로 등록이 가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가은양조장 (구) 가은주조장
2. 용 도 : (현) 양조장 (원) 양조장
3.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양산개3길 13
4. 소유자 : 문경시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38년
- 수량 및 면적 : 대지 813㎡ 건물 241.3㎡(1층 181.9㎡, 2층 59.4㎡)
-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

<○○○○>

1) 개요

- 문경 지역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광산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광산촌으로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번성하였으며, 이후 광업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문경시 가은읍 지역은 1938년 은성무연탄광 개발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광산촌으로서 번성하였으며, 1955년 산업철도 문경선 개통을 계기로 종착역 지역으로서 더욱 발전하며 전성기를 전개
- 1950년대 문경 지역에는 12개의 양조장이 있었으나 그동안 대부분 사라지고 가은양조장과 산양양조장이 오래전 가동이 중단된 채 현재 건물로만 현존하며, 이들에 대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
- 가은양조장은 국사편찬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1938년 12월 27일 금평길홍(金平吉弘)에 의해 ‘가은주조장’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1980년대 이후 광업의 쇠퇴와 함께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다 2010년 가동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
- 문경시에서 가은읍 구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가은양조장을 최근 매입하였으며, 등록문화재 등록과 함께 일부 원형복원과 개보수를 거쳐 공공문화시설과 관광역사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가은양조장 현재 건물은 1938년 창립 당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본적 건축형

식은 근대목조 구조체를 형성하고 벽체는 흙벽돌 위 모르타르,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 시멘트 기와로 각각 마감

- 기본적인 배치 및 평면구성은 본래 남쪽 도로에 면한 정방형 평면 2층 규모, 박공지붕의 사무실 부분과 ‘ㄴ’자형 평면, 1층 규모의 양조장 부분이 서쪽에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ㄴ’자형의 평면을 구성하였으나 후에 빈 부분을 채워 증축
- 사무실 부분은 관리,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정방형 평면내에서 1층은 주출입구 및 현관, 제성실, 사무실, 숙직실, 검사실 등으로 구성되고 2층은 사장실, 응접실, 내빈실 2개실 등으로 구성
- 양조장 부분은 제조,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제성실의 서쪽에 면해 사입실, 입국실, 주입실, 저장실, 증미냉각장, 원료처리장 등이 연속적으로 배치되며 전체적으로 ‘ㄴ’자형 평면을 구성
- 사입실, 입국실, 주입실, 저장실은 양조 과정에서 온도, 습도, 빛에 민감하므로, 두터운 벽체 내부와 천장 상부에 설치된 왕겨층을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하고 벽체에 설치된 작은 창문과 지붕에 설치된 환기구를 이용하여 환기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8년 건축 이후 부분적으로 증축되거나 변형되었지만, 근대 양조장으로서 건축 원형의 기본적인 형식은 전체적으로 유지
- 2010년 가동 중단 이후 방치되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일부는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지만, 보수보강을 통해 원형 복원이 가능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문경시에서 가은읍 구도심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최근 매입하고 등록문화재 등록과 함께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 중이므로, 등록시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가은읍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등록문화재 등록과 함께 일부 원형복원과 개보수를 거쳐 공공문화시설과 관광역사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 중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문경시에서 근대문화유산과 역사관광자원으로서 적극 보존, 활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등록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므로, 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의 부합성과 실현가능성은 충분함
- 인근에 위치한 가은역(등록문화재 제304호)과 연계하여 가은읍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구도심 재생과 활성화의 중심적 역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양조장의 등록문화재 사례는 진천 덕산양조장(등록문화재 제58호)과 양평 지평양조장(등록문화재 제594호)의 두 사례가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여 가은양조장은 근대양조장으로서 차별되는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가은양조장은 1938년 건축된 건물로 전체적 규모가 현존하는 근대기 양조장으로서 사무실 부분이 독특하게 2층으로 구성되고 양조장 부분이 근대양조장의 생산과정과 기능을 건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
 - 현재 부분적으로 변형되고 노후화, 훼손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근대기 양조장의 기본적 기능과 건축적 특성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양조장 등록사례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가은양조장은 과거 문경시 가은읍의 번성하였던 근대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자원으로서 문경시에서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래 보존, 활용여건도 양호
 - 이상과 같은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속적 보존, 활용을 위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명칭은 문경 가은양조장

<○○○>

1) 개요

- 문경 가은양조장은 1938년 12월 17일 김평길홍(金平吉弘)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5년부터 강용우 외 3명이 공동운영하다가 2004년부터 강용우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탁주 수요가 줄어들어 2010년경 생산을 중단하였다.
- 양조장 건물은 단지 영업중단후 노후화되어 있을뿐 양조 공정에 따른 각 실이 남아 있고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수료증 등의 서류와 사무기기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일제강점기 석탄광업의 중심이 문경선 철도의 종착점으로 가은역사(등록 제304호), 불정역사(등록 제326호),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등록 제289호)이 위치하여 근대시기의 탄광역사와 당시대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2017년 문경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근대사업유산을 이용한 역사, 문화, 건축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지는 동쪽의 대로와 남쪽의 골목길을 따라 장방형에 가까운 배치를 하고 있으며 건물은 장방형에 사무실동과 양조장구역으로 구분되는 2개동의 건물이나 여러개의 공간이 합쳐지고 지붕형태를 달리하는 단일 건물형태를 갖는다. 사무실동은 2층으로 목구조이며 나머지는 단층이다. 양조장 구역의 벽체는 흙벽돌을 조적하고 그 위에 시멘트 몰르타르를 마감하고 상부는 목조트러스를 사용하였다. 지붕마감재는 시멘트기와와 슬레이트를 혼용하고 있다.
- 사무실동(2층)은 목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증미냉각장 상부는 증기배출이 원활하도록 솟을지붕을 만들어 통풍구를 두었고, 생산시설에 연관된 사입실, 입국실 등의 실은 반자상부에 두꺼운 왕겨층을 두어 양조과정에 필요한 온습도 조절에 적합한 건축적 구조를 갖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0년경 폐업이후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상태가 쇠락하고 있으며 부재들의 노후화로 부분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시가지안에 노후화된 건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문경시에서 가은양조장을 매입하여 근대양조산업시설에 대한 보존의지를 보이고 있어 건물의 보존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지가 크다. 양산천변과 왕릉교 인근에 위치하고 안쪽은 주택가 골목길로 이어져 있으며 주변환경은 양호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양조장 수리를 통하여 양조산업을 살필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이 필요하고 수리 범위와 예산, 건물의 활용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문화재 등록에 관한 의지는 분명한데 반해 지역사회에서 문화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건물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기타사항

- 현재 사무실동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에 따른 각종 등록증과 가구집기 등의 안전한 보관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된 덕산양조장(1930, 등록 58호), 지평양조장(1925, 등록 594호)과 비교해 볼 때 가은양조장은 현재 폐업하여 노후화되었지만 건물 형태, 규모, 각종 증명서류 등이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7) 등록가치의견

- 문경시에서 가은양조장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크다. 등록과 더불어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건물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에 적합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 양조장은 건립이후 건물 배치와 구조가 비교적 원형과 가깝게 잘 유지되고 있다. 목구조의 사무실동(2층)과 흙벽돌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목조트리스를 사용한 단층의 양조장은 근대식건축으로 한식목구조와는 달리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흙벽돌구조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 점과 솟을지붕의 구성, 온습도조절을 위한 천장의 왕겨층, 당대의 양조설비 기술 등은 근대시기의 양조장 건물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 건물의 등록은 가치가 있다고 보며 활용을 위한 문경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고 수리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경 가은양조장

<○○○○>

1) 개요

- <문경 가은양조장>은 문경시 가은면 가은읍내에 위치하며 옛 국도변에 접하고 있다. 가은 읍내는 근래에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 주변의 건축물과 도시경관이 조화하고 있다. 특히 인근의 가은역(등록문화재 304호)와도 연계된 근대건축물로서 그 보존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기본적인 뼈대와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고 있다.
- 양조장으로써 초기 각 공간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 외형적으로도 읍내의 근대적 풍치를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형상을 갖고 있다.
- 1938년 일산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은성무연탄광을 개발에 착수하는 해에 동시에 가은 양조장이 설립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38년의 근대적 건축물로서 시대적 표현을 가진다.
- 이 지역의 석탄산업의 발전과 읍내의 번창을 보여주고 있다.
- 건물은 초기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 사무공간인 2층구조와 함께 이어진 1층부분은 지붕 상부 솟을지붕(증미냉각장 상부)에는 환기 및 빛 유입을 위한 통풍창이 독특하게 구성되었다.
- 평면은 ‘ㄷ’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며 벽은 흙벽돌과 모르타르로 구성되었다.
- 근대적인 목조 트러스 구조와 토속적인 흙벽돌벽체가 잘 만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8년에 건립하여 2010년까지 탁주를 생산하여 근 70년을 탁주생산의 기능을 유지해 왔으나 그 이후에는 제조를 중단여 현재까지 공가로 남아 있었으므로 비교적 노후상태가 심하다.
- 일부 생산시설이 남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옛 시설유구의 잔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 창건 당시로부터 일부 증축 등이 있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나 원형이 훼손된 흔적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가은읍내의 옛 국도변에 위치하며 인근에 근대적 도시풍경이 풍부하다.
- 지자체가 소유하여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다
-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담당관이 솔선수범이다.
- 건축물의 주변의 여유로운 외부공간이 있어서 건축물의 활용에 여건이 양호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수립임
- 건축물의 본래기능을 되살리는 활용이 적절한 방안(양조)이 될 수 있음
- 홍보성 강한 활용방안보다는 건축물의 본래기능에 가깝고 건축물의 구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활용방안이 요구됨

- 활용을 위한 제 설비를 부가할 경우 건축물이 견딜 수 있고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요구됨
- 일반적인 활용 방안(전시장, 카페, 등)보다는 지역성, 혹은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방안이 바람직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인근의 근대유산 활용 사례를 볼 때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또한 지자체가 소유자이므로 사유지보다는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 문경시내 타 문화재와 연계 탐방코스 개발 가능
- 탁주 생산 체험장 등도 고려해 볼만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충북 진천 양조장 및 양평 지평양조장은 본래의 기능을 살려 양조업을 계속하여 상당한 실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30년대 말 탄광지역의 주조장 건축물은 산업적 배경과 역사성에서 근대유산으로 등록가치가 크다고 사료됨
- 건축물 자체로도 형태나 공간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보존수리가 용이하여 근대유산으로 등록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 소유자(문경시)가 근대유산으로 보존, 활용의 의지가 강하므로 등록이 가하다고 사료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활용을 전제로 근대유산 등록이 일반적이므로 그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활용방안이 건축물의 상태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기능선택이 요구됨
- 활용을 위한 제반 설비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념이 필요.

3. 「문경 산양양조장」 문화재 등록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문경 산양양조장」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경 산양양조장」의 현지조사(2017.9.1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문경 산양양조장
 - 용 도 :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생산시설 미활용)
 - 수량 및 면적 : 건물 2동(각 1층) * 대지 1,226㎡
 - 주조장 251㎡ / 부속건물 17㎡
 - 구조 및 형식 : 목조
 - 준 공 일 : 1944년
 -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14-5(불암리 64) 외
 - 소 유 자 : ○○○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 산양양조장은 최초 건축 이후 부분적으로 증축되고 내부는 일부 변형되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양조장의 제조와 생산을 위한 공간이 기본적 기능과 특성을 상실한 채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임.
- 1944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조장 건물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성은 인정되지만 오래전 가동이 중단된 채 그동안 방치되어 현재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구체적 보존, 활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이상과 같이 산양양조장은 현재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장래의 구체적 보존, 활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가치는 미흡한 상태로 판단됨.

○ ○ ○ ○

- 양조에 따른 각 실의 배치와 일식심벽구조의 특성은 남아있으나 양조장 운영중에 무질서한 실의 증축과 수리(원형과 다른 마감재 사용의 혼용)로 인해 건물의 원형이 다수 변형되었음. 또한, 폐업이후 건물의 안팎에서 퇴락이 발생되고 있어 등록에 앞서 청소를 통한 주변의 정비가 필요함.
- 기 등록된 양조장과 비지정 가은양조장에 비해 다수의 변형과 퇴락 등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등록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

- 건물의 노후상태로 볼 때 보존수리가 원형복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따라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수리복원계획이 마련된 후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가치 미흡

○ 출석 7명/ 부결 7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산양양조장 (구) 산양합동주조장

2. 용 도 : (현) 양조장 (원) 양조장

3.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14-5외

4. 소유자 :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근대목조
- 준공일 : 1944년 (건축물대장 기록)
- 수량 및 면적 : 확인 필요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1) 개요

- 문경 지역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광산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광산촌으로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번성하였으며, 이후 광업이 지역의 주요산업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산양면 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산양장의 장터로 번성하였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직후 가축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장되고 성황을 이루다 점차 쇠퇴
- 1950년대 문경 지역에는 12개의 양조장이 있었으나 그동안 대부분 사라지고 가은 양조장과 산양양조장이 오래전 가동이 중단된 채 현재 건물로만 현존하며, 이들에 대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
- 산양양조장은 문경시에서 산양면 구도심 재생을 위해 매입하여 근대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소유주가 거부하여 무산되었으며, 산양양조장 정면 길 건너편에는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등록문화재 제289호, 1945년 건축)이 위치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산양양조장은 1944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근대목조 구조체를 형성하고 벽체는 목조심벽 위 모르타르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본래 골함석 마감이었으나 후에 골슬레이트로 변경
- 기본적인 배치 및 평면구성은 전면 남쪽 도로에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 평면의 박공지붕 건물 두 동이 장변을 맞대고 서로 연결된 형식이며, 전면 경사지붕 일부와 서측면 경사지붕 부분은 후에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 연접된 두 건물 중 앞 동은 전면부에는 동쪽에 현관, 사무실, 검사실, 숙직실 등 관리업무 공간을 배치하고 서쪽에 방, 대청 등으로 구성된 주택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후면부에는 뒷동과 사이에 넓은 통로를 형성하고 작업공간으로 활용
- 현관, 사무실, 검사실 부분은 동서방향으로 긴 박공지붕과 직각방향으로 박공지붕을 형성하고 앞쪽으로 약간 돌출시킴으로써 정면성과 진입성을 강조
- 연접된 두 건물 중 뒷동은 앞 동의 넓은 통로에 면해 제조, 생산을 위한 종국실, 주모실, 사입실 등을 일자로 배치하였으며 이들을 둘러싼 외벽은 양조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절을 위해 내부에 왕겨층을 채워 두껍게 구축
- 전체 건물 서쪽에 경사지붕 부분은 앞동은 주방, 보일러실 등 주거기능 확장, 뒷동은 술저장실, 창고 등 저장기능 확장을 위해 후에 증축되었고 남쪽의 건물 전면 일부도 후에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축 이후 부분적으로 증축되고 내부는 일부 변형되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양조장 제조, 생산을 위한 공간이 기본적 기능과 특성을 상실한 채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
- 주택 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양조장 가동이 2004년 중단된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일부는 훼손이 심각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산양면 중심시가지 가로에 면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정면 길 건너편에는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등록문화재 제289호, 1945년 건축)이 위치하여 연계활용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아 등록시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문경시에서 산양면 구도심 재생을 위해 매입하여 정면 길 건너편에 위치한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등록문화재 제289호, 1945년 건축)과 함께 연계 활용하려 하였으나 소유주가 거부하여 무산
- 소유주는 등록 후의 구체적 보존,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며, 문화재 보존, 활용 측면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민간시설 보다 문경시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공문화시설로 보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양조장의 등록문화재 사례는 진천 덕산양조장(등록문화재 제58호)과 양평 지평양조장(등록문화재 제594호)의 두 사례가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여 산양양조장은 근대양조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축적 특성이 미흡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산양양조장은 최초 건축 이후 부분적으로 증축되고 내부는 일부 변형되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양조장의 제조와 생산을 위한 공간이 기본적 기능과 특성을 상실한 채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

- 1944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조장 건물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성은 인정되지만 오래전 가동이 중단된 채 그동안 방치되어 현재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구체적 보존, 활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
- 이상과 같이 산양양조장은 현재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장래의 구체적 보존, 활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가치는 미흡한 상태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1) 개요

- 산양양조장은 1944년 ‘산양합동주조장’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70여년을 유지하다가 10여년전에 폐업한 이후 건물의 전면좌측 부분에 일부 주거기능만 유지되고 있다.
- 양조장 건물은 영업중단후 내외부에서 관리부재로 노후화되어 있고 본 건물에 연이어 증축된 창고와 별도의 부속창고는 슬레이트지붕과 벽체의 일부분이 퇴락되고 있다.
- 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는 산양면소재지는 일제강점기부터 도시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곳으로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등록 제289호)을 비롯하여 일식건물이 비교적 다수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방치되고 있는 산양양조장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주변의 거리와 건물을 연계하여 근대시기의 역사유산을 보존활용하고자 한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지는 북향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건물은 전후로 2개동의 건물이 붙여져 있다. 좌측은 주거공간이며 나머지는 양조장 공간이다. 전면에 가적지붕과 부섭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부섭지붕이 이루는 박공벽 하부에 현관이 위치하며 건물 외부에 노출된 목골조는 일식건축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콘크리트 줄기초위 목조심벽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면은 미서기창을 배치하고 하부벽은 회반죽, 상부벽은 흙벽위 시멘트 모르타르 뽀칠로 마감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목재가 노출되어 있다. 좌우측면은 흙벽, 골슬레이트, 강판 등을 사용하여 마감하고 있다. 지붕형태는 맞배지붕이며 지붕가구는 목조왕대공트러스구조로 되어 있다. 탁주 제조에 관련된 사입실과 종국실 천장은 왕겨층을 넣어두고 널부재로 마감하여 종균보양을 위한 온습도 유지를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 각 실별로 기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술 저장실의 술통과 술독, 주변 기기 등이 흩어져 있고 각 실을 표시하는 실명판이 남아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폐업이후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상태가 쇠락하고 있으며 부재들의 노후화로 부분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시가지안에 노후화된 건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가 근대건축의 보존활용 측면에서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산양양조장 주변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도시계획에 따른 거리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문경 구 금융조합사택’(등록 제289호)을 비롯하여 일식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근대문화유산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등록 및 양조장 수리를 통하여 넓은 공간을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공간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보존활용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문화재 등록에 관한 필요성과 의지는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문화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건물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록에 앞서 산양양조장 내외부의 환경정리(청소, 노후부재교체, 잡다한 부속 건물 정리)가 필요하다.

다. 기타사항

-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조에 관련한 도구와 집기, 문서, 역사자료 등의 안전한 보관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등록된 덕산양조장(1930, 등록 58호), 지평양조장(1925, 등록 594호)과 비교해 볼 때 산양양조장은 현재 폐업하여 여러부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어있다. 남아있는 도구나 자료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7) 등록가치의견

- 소유주측에서 활용할 의사를 표현하였던바 등록 이전에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건물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에 적합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양조에 따른 각 실의 배치와 일식심벽구조의 특성은 남아있으나 양조장 운영중에 무질서한 실의 증축과 수리(원형과 다른 마감재 사용의 혼용)로 인해 건물의 원형이 다수 변형되었다. 또한 폐업이후 건물의 안팎에서 퇴락이 발생되고 있어 등록에 앞서 청소를 통한 주변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 등록된 양조장과 비지정 가은양조장에 비해 다수의 변형과 퇴락 등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보존활용계획이 수립되고나서 등록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경 산양양조장

<○○○○>

1) 개요

- 옛 산양양조장은 산양면 읍내 국도(지방도)에 면하고 있으며 구 금융조합사택(등록문화재 289호)와 마주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가은역사(등록문화재 304호), 불정역사(등록문화재 326호)가 근대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한편 문경시에는 이밖에도 근대적인 주택들이 다수 남아있는데 김학임가옥, 권영수가옥, 이용우가옥, 김상명가옥, 조동하가옥 등이 그것이다.
- 그 밖에 은성교, 새재의원 등도 근대적 유산으로 분포하고 있다.
- 산양 양조장은 1944년에 건립되어 생산을 계속해오다가 문경의 석탄산업이 활성화되자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1956년 대한양회 문경공장이 준공되고 1969년에 문경선이 개통되었고 1970년대는 인구도 급증하여 크게 호황을 이루었다.
-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교통수단의 발달과 석탄 수요의 퇴보로 양조장도 쇠락하기 시작했다.
- 산양양조장도 2000년대 후반에 생산을 멈추고 건물이 노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 읍내 네거리 모서리 대지에 위치한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옛 산양양조장은 장방형 사다리꼴 모양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둘레에 일부 밭을 가꾸고 있다. 본 건물은 대지의 중심에 남향하고 있으며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 양조장 건물은 전후 병렬 2동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각기 지붕을 따로 갖고 있다.
- 앞 동은 근대 간이역들처럼 박공지붕을 돌출시켜 주출입구인 현관이 위치하였다. 현관을 들어서면 사무 행정 관련실이 배치되고 왼편에는 주거용 공간으로 사택이 배치되었다.
- 뒷동은 양조관련 시설이 주요 기능으로 왼쪽은 발효실과 저장창고, 오른쪽은 배양실(종국실)로 구성되었다.
- 주요 구조는 중목골 트러스구조로 벽체는 흙벽이다. 전면부는 창호 등 개구부 위에 캐노피(눈섭지붕)를 달았다.



<그림 1> 2005년 촬영한 산양 양조장. 이때는 탁주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조사자 촬영)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준공시의 부분과 증축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상세조사가 필요하다.
- 노후가 비교적 심각한 수준이다.
- 골슬레이트가 올라간 지붕은 원재료가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하다(일식기와의 추정)
- 복원을 위한 보존수리는 상세조사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 금융조합사택(등록문화재 289호)와 마주하고 있어서 연계활용도 고려해볼만하다
- 지자체가 소유하여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다
-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담당관이 솔선수범이다.
- 건물의 노후상태로 볼 때 보존수리가 원형복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수립임
- 건축물의 본래기능을 되살리는 활용이 적절한 방안(양조)이 될 수 있음
- 홍보성 강한 활용방안보다는 건축물의 본래기능에 가깝고 건축물의 구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활용방안이 요구됨
- 활용을 위한 제 설비를 부가할 경우 건축물이 견딜 수 있고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요구됨
- 일반적인 활용 방안(전시장, 카페, 등)보다는 지역성, 혹은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방안이 바람직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인근의 근대유산 활용 사례를 볼 때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그러나 건축물의 노후가 심각하여 보존 및 활용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수리복원계획이 마련된 후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충북 진천 양조장 및 양평 지평양조장은 본래의 기능을 살려 양조업을 계속하여 상당한 실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수리복원계획이 마련된 후 실현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활용을 전제로 근대유산 등록이 일반적이므로 그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활용방안이 건축물의 상태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기능선택이 요구됨
- 활용을 위한 제반 설비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념이 필요.

4. 「당진 신평양조장」 문화재 등록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당진 신평양조장」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진 신평양조장」의 현지조사(2017.8.2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소유자의 자(子)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당진 신평양조장
 - 용 도 : ‘양조장’은 현재 사용중, ‘관리사’는 미사용
 - 수량 및 면적 : 2동/ 각 1층
 - 양조장 224m², 관리사 41m²
 - 구조 및 형식 : 목조
 - 준 공 일 : 양조장 1930년대(추정), 관리사 1953년(상량문 확인)
 -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금천리 350-1)
 - 소 유 자 : ○○○
- (3)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양조장’은 지속적 사용, ‘관리사’는 구체적 계획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 ○

- 양조장 건물은 1930년대 신평양조장 창립 당시 건축된 후 현재까지 생산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대양조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축적 특성이 미흡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관리사 건물은 양조장 소유주를 위해 건축된 주거시설 여러 채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로 1953년 건축되었지만, 근대한옥으로서 뚜렷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 ○ ○

- 1930년대 건축된 양조장은 근대시기의 양조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역사 자료가 될 것임. 대상 건물 외에도 양조문화원이 활용되고 있어 문화재의 활용은 용이한 편으로 사료됨. 그러나 내부 증축에 따른 건물의 변형이 커서 초기 원형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움.
- 근대시기의 양조에 관련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으며 ‘조선주조협회 회원명부(1937)’ 등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짐.
- 관리사 위치는 도로보다 낮고 축벽에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의 환경이 열악하여 보완이 필요함. 2개동 각각의 건물이 위치한 지번이 350-1번지 외 1 필지가 되어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통해 가능하리라 봄. 2동의 건물 연면적이 공부상 수치와 학술연구용역의 실측과 다른점을 살필 필요가 있음. 양조장 건물의 건립년도는 1930년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상량문 확인이 필요함.

○ ○ ○ ○

- 양조장과 관계가 없는 관리사와 문화관을 제외하고 신평 양조장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양조장 건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전국적으로 많은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고, 신평양조장 정도의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많이 남아 있는 편임.
- 또한 본 양조장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나 특정 사건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가치 미흡

○ 출석 7명/ 부결 7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당진 신평양조장 (구) 당진 신평양조장

2. 용 도 : (현) 양조장, 주택 (원) 양조장, 주택

3.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금천리 350-1)

4. 소유자 :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양조장 1930년대(추정), 관리사 1953년(상량문 확인)
- 수량 및 면적 : 양조장 224㎡, 관리사 41㎡
- 층수(높이) : 각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1) 개요

- 신평양조장은 현재 양조장 건물을 중심으로 서측에 관리사, 동측에 양조문화원의 총 3동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리모델링을 통해 원형이 크게 변형된 양조문화원을 제외하고 양조장과 관리사를 등록 신청.
- 신평양조장은 1930년대 창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양조문화원에 전시 중인 창업주 김순식 명의의 1939년 주류품평회 상장, 1937년 조선주조협회 명부 등을 통해 추정 가능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양조장 건물은 한식과 일식이 절충된 근대목조, 골함석 지붕, 1층 건물로 배치 및 평면은 본래 ‘ㄱ’자형과 ‘一’자형이 연결된 ‘ㄷ’자형이었으나 후에 1960년대 중정부를 채워서 증축
- 양조장 건물 외관에서 외벽은 본래 하부 시멘트 모르타르 뽀칠 마감 위 상부 회반죽 마감이었으나 현재 정면 벽체 하부는 판벽 마감으로 변형된 상태
- 양조장 건물 내부는 구조에 필요한 종국실, 발효실, 살균실과 사무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구조방식 변화와 식품위생법에 맞춰 현대식 설비가 설치되며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
- 관리사 건물은 양조장 소유주가 거주하였던 주택으로 정면 6칸, 측면 3칸, 2고주5량 가구, ‘一’자형 평면, 팔각지붕의 근대한옥으로 동측으로부터 부엌, 방, 대청, 창고(후에 증축)의 순서로 평면을 구성하고 부엌 상부 지붕속에는 다락을 형성
- 관리사 건물은 방 천장속 상량문을 통해 단기 4286년(서기 1953년)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본래 여러 채의 근대한옥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존하는 관리사 1동만 남고 나머지 건물은 멸실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양조장 건물은 본래 ㄷ'자형 배치 및 평면이었으나 후에 1960년대 중정부가 채워져 증축되었으며, 외관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면 창호와 하부 벽체가 변경되었고 내부는 현대식 설비가 설치되며 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
- 관리사 건물은 현재 거주자 없는 빈집으로 오랜 관리부실로 인해 현재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일부 부재는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부엌은 입식으로 변형되고 창고가 연결되어 증축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당진읍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3동의 건물이 나란히 전면 도로에 가깝게 인접하고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낮은 점은 보존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양조장 건물은 지속적으로 양조장 생산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일부 증축된 부분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원형을 복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 관리사 건물은 현재 활용되지 않는 상태로 장래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양조장의 등록문화재 사례는 진천 덕산양조장(등록문화재 제58호)과 양평 지평양조장(등록문화재 제594호)의 두 사례가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여 신평양조장은 근대양조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축적 특성이 미흡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양조장 건물은 1930년대 신평양조장 창립 당시 건축된 후 현재까지 생산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대양조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축적 특성이 미흡하고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관리사 건물은 양조장 소유주를 위해 건축된 주거시설 여러 채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물로 1953년 건축되었지만, 근대한옥으로서 뚜렷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1) 개요

- 조사 대상 건축물은 신평양조장으로 양조장(1930년대 건축), 관리사(1953년 건축), 양조문화원(1930년대)으로 구분되며 양조장과 관리사가 신청건물이다. 양조장은 현재 사용중이며 관리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신청건물은 중로3류(폭12-15m)에 인접하여 도로와 고저차가 발생하고 있다. 양조장 초기에는 ‘ㄷ’자 형태의 평면이었으나 후대에 증축을 통해 ‘ㄱ’자 형태가 되었다. 관리사 ‘一’자 평면으로 북쪽면에 위치한 도로와의 고저차가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는 건물은 지붕면과 창문의 상인방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경관이 좋지 못하다. 관리사는 2013년 지붕을 수리하였다.
- 양조장은 1933년경 창업자 김순식 대표(당시 24세)가 신평양조장의 전신인 ‘화신양조장’을 창업하였고 현재 2대 김용세 대표가 전통적인 양조기술을 전수받아 양조기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조문화원에는 신평양조장의 근대시기를 보완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과, 주류관련 자료들이 보관·전시되어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상 건물은 양조장과 관리사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외 건물인 양조문화원과 함께 도로변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양조문화원이 동쪽에 위치하고 신청건물인 양조장과 관리사 서쪽으로 경사진 대지를 따라 이어져 있다. 북측의 도로와 고저차가 관리사 쪽으로 갈수록 커져 1.5-2m정도에 이른다.
- 양조장은 1930년대에 ‘ㄱ’자와 ‘一’자 2동의 팔작지붕의 건물을 지붕골을 두고 합쳐서 ‘ㄷ’자 평면을 이루었고, 1960년대 중앙부와 후면을 증축하여 건물전체는 ‘ㄱ’자 형태를 이룬다. 초기의 ‘ㄷ’자 건물은 한식목구조를 바탕으로 일식목구조를 접합하여 절충식 구조를 이룬다. 각 기둥은 방형목재를 사용하였고 벽체는 심벽식 흙벽구조이나 시멘트 몰탈, 타일, 판재로 마감하였다. 정면인 북쪽벽 하부는 일식구조로 비늘판을 붙였다. 지붕구조는 천장으로 가리워져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5량구조로 추정된다. 내부 평면은 양조를 위한 각 공정별 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계설비와 동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실은 전통방식대로 보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초기건물과 증축에 따른 건물은 구조와 형태의 큰 변동없이 보존되고 있다.
- 관리사는 ‘동서’로 축을 이루며 정면이 동쪽인 팔작지붕 근대식한옥목구조 건물로 1953년에 건축되었다(상량문 사진참조). 정면 6칸(좌우로 퇴칸), 측면3칸 규모이며 후대에 좌측면에 벽돌조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지붕가구는 2고주 5량구조이며 귀처마 부위에 활주를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부엌, 방, 대청과 뒹마루가 있으며 부엌상부에 다락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양조장은 건립당시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주변환경이 많이 변경되었으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증축이 있었고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양조공정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중국실에서와 같이 실의 내부 마감을 달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벽체의 마감에 일관성이 없고 중국실의 천장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수리가 필요하다.

- 관리사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여러 부위에서 풍화와 훼손이 발견된다. 2013년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지붕면의 상당부분이 가라앉아 있고 처마곡선이 다수 흐트러져 있다. 수리시 하중계산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부엌을 제외하고는 원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의 양조장 및 관리사 보존은 창업자의 양조장 가업승계 의지가 뚜렷하고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가 강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양조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당진시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양조문화원을 운영하여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어 이 공간을 통한 체험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양조장은 위생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적절한 참관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리사는 주택이었으나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근대기의 양조역사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어왔기에 문화재 활용 측면은 긍정적이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양조장 건물이 기등록된 곳은 진천 덕산양조장(등록 제58호, 1930년, 단층 목조), 양평 지평양조장(등록 제594호, 일제강점기, 단층 목구조)이 있다. 지역에 따라 양조의 문화가 공통적이거나 근대시기에 건축된 한식 혹은 절충식목조건물로 양조공정에 따른 중국실의 구조 역시 유사하다.
- 신평양조장에는 근대시기 건물이 3동 있으며 이중 2개동만 신청하였다. 양조문화원 건물(1930년대)이 별도로 있고 신청된 별도의 관리사(1953년)는 양조장과 관련하여 근대시기의 양조문화를 살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된다. 아울러 양조에 관련한 여러 역사 자료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7) 등록가치의견

- 1930년대 건축된 양조장은 지역사회의 삶의 중심이 되어왔고 대상건물은 근대시기의 양조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역사자료가 될 것이다. 대상 건물 외에도 양조문화원이 활용되고 있어 문화재의 활용은 용이한 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내부 증축에 따른 건물의 변형이 커서 초기 원형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 근대시기의 양조에 관련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으며 ‘조선주조협회 회원명부(1937)’ 등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 관리사 위치는 도로보다 낮고 축벽에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의 환경이 열악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2개동 각각의 건물이 위치한 지번이 350-1번지 외 1필지가 되어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2동의 건물 연면적이 공부상 수치와 학술연구용역의 실측과 다른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양조장 건물의 건립년도는

1930년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상량문 확인이 필요하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당진 신평양조장.

- 관리사는 원래 ‘주택’ 용도였으며 ‘관리사’ 는 연구용역에서 편의상 명칭을 사용하였음. 명칭을 ‘가옥’ 으로 표현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

1) 개요

- 조사대상 건축물은 정확한 건립년대를 알 수는 없으나 19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조장 건물로 현재에도 양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옥형식의 양조장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전통한옥양식의 관리사, 동쪽에는 창고건물 형식의 문화원 등 3개 필지에 걸쳐 도합 4동의 건물이 하나의 군(群)을 이루고 있다.
- 양조장은 북쪽 도로에 주출입구를 두되 전체적으로는 남향하고 있다. ㄱ자형 건물과 그 전면에 一자형 건물이 ㄷ자 배치를 하고 있다. 원래는 중정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증축과정을 통하여 전체가 하나의 지붕으로 덮혀 있다.
- 관리사는 일자형 전통 한옥건물로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종도리 상량문에 의하면 단기 4286년(1953) 건축된 것으로 당시 사진을 보면 별도의 일곽을 이루고 있는 건물로 현재의 양조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과거 창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립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양조장 건물은 남쪽에 별동으로 건축된 一자형 건물을 제외하고 ㄱ자형 평면을 하고 있는데, 이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ㄱ자형 건물에 一자형 건물이 접속한 형식이다.
- 정면 6칸, 측면 6칸 규모로 칸사이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평면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 한식목조 건물이기는 하지만 기둥의 크기(120mm각)가 적고 서까래의 굵기가 얇은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부터 기와지붕이 아니라 함석지붕으로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확인)
- 무고주 5량 형식으로 가구를 구성하였는데, 종도리의 위치가 3분변작이나 4분변작의 전통적인 구성을 따르지 않고 낮게 위치하고 있다.
- 一자형 건물 중국실의 벽체 일부에 왕겨를 채운 흔적이 남아 있고 중정 가운데에 우물이 있는 것 등은 양조장 건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관리사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동쪽으로부터 각각 1.5칸 창고, 2칸 방, 마루 1.5칸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후에 퇴칸을 구성한 건물로 장마루로 마루를 짜고, 방과 대청 전면 퇴칸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근대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대청마루에 고주를 세우고 긴 대들보를 드러내고 있는 것 등은 전통적인 한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지방 목수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지붕부를 수리하였는데, 당시 공사사진을 보면 전통건축과 달리 지붕위 보트의 두께가 두껍지 않음을 볼 수 있다.
- 양조문화원은 창고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을 2014년 전면 수리하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0년대 건축된 것으로 여겨지는 양조장 건물은 외부는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으나 ㄱ자형 내부 중정과 건물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실들이 원형을 잘 알지 못할

만큼 많이 변형되어 있다.

- 특히, 양조장 건물로서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현대식을 대부분 교체되어 전통 양조장으로서의 특징을 알기 어렵다.
- 1953년 건립된 관리사는 큰 변형이 없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다만, 주거관련 건물임에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습하고 벽체의 부분적인 퇴락현상이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소유주는 신평양조장의 문화재 등록에 찬성하고 있다.
- 또한 신평양조장에서 제조한 탁주는 유명세를 타고 상업적 가치도 높은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양조장 옆에 마련한 양조문화원에는 신평양조장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마련하였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전통주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 국도 23호선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이 있어 서해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편이다.
- 문화재 등록이 아닌 전통주 제조와 관련하여 지방 무형문화재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가장 오래된 건물인 양조장은 중앙 중정부의 증축 및 변형이 많은 상황이라 원형으로 복원이 쉽지 않다. 따라서 등록후에 보존활용방안을 정할 예정이라 한다.
- 등록후 양조역사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양조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양조장 건물의 등록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실현가능성은 있으나 어떠한 의미에서 역사관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도 양조문화관이 있고 그곳에서 그와 유사한 활동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양조장 건물은 다음과 같이 2개이다.
진천 덕산 양조장 (등록문화재 58호), 양평 지평 양조장(등록문화재 594호)
- 이들 등록 양조장의 특징은 양조장으로서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본 신평 양조장의 경우는 양조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현재도 생산을 하고 있으나 구조방식(발효실, 종국실 등)과 건축에서 전통적인 방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의 등록문화재 건물과는 차이를 보인다.
- 또한 주변의 관리사나 문화관은 원래 양조장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건물로 후대

에 건축된 것들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양조장과 관계가 없는 관리사와 문화관을 제외하고 신평 양조장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양조장 건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적으로 많은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평양조장 정도의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 또한 본 양조장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이나 특정 사건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사항

5.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 사적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일자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324)	서울 서대문구	국가 보훈 처장	<p>[사적지 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 한센병사 앞 ○ 허가내용 : 사적지 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p><행사용 무대 및 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무대 : 14000*8000*600 * 철제구조물, 나무판넬 - 교향악단 : 8000*6000*300 * 나무구조물, 나무판넬(반네루) - LED 전광판 : 7000*3000*7500 * 철제구조물(레이어), 나무판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결과 : 조건부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질서유지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불편을 예방하도록 함 - 행사 준비·진행·완료 단계 모두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허가기간 : 2017.11.15~2017.11.17 	조건부 허가	'17.10.16.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7명/ 접수 7명